

유가 급등에 농협 300억 긴급 투입... 농업인 부담 낮춘다

면세유 할인 250억·주유소 할인 50억... 전남에 45억 배정

국제유가 급등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3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섰다.

전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세유 할인 지원금이 배정돼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전남본부장은 12일 이광일 본부장이 영암 삼호농협을 찾아 최근 급등한 유가도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과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농협은 앞서 자체 재원 300억원을 투입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 가운데 250억원은 면세유 할인 지원

에, 50억원은 농협 주유소 이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유류비 할인에 사용된다.

특히 면세유 할인 지원 250억원 가운데 전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45억원이 배정됐다.

할인 대상 유종은 농업 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 적용되며 한 달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유류비 지원이 신속히 영농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12일 영암 삼호농협 농영 주유소를 찾아 급등하는 유가도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방안 의견을 청취하고 주유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전남농협 제공

“가족 생계 책임져요” 광주 청소년 821명... 5명 중 1명 18세 이하

광주 사회서비스원 조사 10명 중 8명이 기초수급가정

광주에서 부모의 질병·장애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이 821명으로 이 중 80%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사회서비스원은 5개 자치구, 복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해 가족돌

봄청소년·청년 현황 조사를 한 결과 가족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은 821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 427명(52%), 남성 394명(48%)이며 연령별로는 19~24세가 3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25~29세가 23.6%로 뒤를 이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도 전체의 21.6%를 차지해 대상자 5명 중 1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형태는 96.6%가 돌봄 대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청소년이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족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돌봄 대상은 어머니(57.1%)와 아버지(30.3%)가 대부분이었으며 돌봄이 필요한 주요 원인은 신체질병(49.5%)과 장애(47%)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족돌봄 청소년 가정의 경제 상황은 10명 중 8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

급 가구였으며 16~18세 청소년의 경우 89.8%, 19~24세는 89.4%가 수급 가구로 분석됐다. 또 가족돌봄 청소년의 37.9%는 가족의 생활비(26.9%), 식비(9.1%), 병원비(6.8%) 등 생계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김대삼 원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중요한 시기에 돌봄 부담을 동시에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와 복지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달까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대응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지역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지난해 885명으로 전년(704명)보다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등 물리적 폭력이 57.6%를 차지했고 명예

광주경찰, 신학기 학폭 예방 캠페인-전담경찰 교육 추진

훼손·모욕 등 언어폭력은 75.4% 증가했다.

광주경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29명의 SPO를 배치해 학교를 정기 방문하고 맞춤형 예방교육과 상담 활동을 진행한다.

학교와 협력을 강화해 학교폭력 발생

시 중대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경미한 사안은 회복·조정 중심으로 대응한다.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고위험 학교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청소년 절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사업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과 정책 참여 활동을 추진하고 SPO와 교사 간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진행한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청소년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화정남·유촌초등학교 등 지역 초등학교 11곳 주변에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주시 안전정책관·교통운영과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수칙을 시민에게 흥

광주시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개학기 맞아 초등학교 11곳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

주세요’를 주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실천을 집중 홍보하고, 교통안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 통행 ▲교통신호 준

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교통안전 행동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하경완 안전정책관은 “어린이 교통안전 외에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3월 말까지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전남 작은학교 교실에서 ‘영화’ 만든다

전남교육청, ‘글로벌 작은학교 영화 특성화 교육’ 확대 추진 영화로 담은 작은학교·영화제 AI광고 솜품 공모전 운영

학생들이 감독이 되고 작가, 배우, 촬영 스태프가 되는 창의융합교육이 전남 작은학교에서 펼쳐진다.

전남남도교육청은 작은학교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작은학교 영화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영화로 담은 작은학교’ 사업과 ‘작은학교 영화제 AI 광고 솜품 공모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화로 담은 작은학교’는 영화 제작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융합교육이다. 학생들은 시나리오 작성부터 연기, 촬영, 편집, 음악, 미술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협력과 창작을 경험하게 된다. 학생 수가 적은 작은학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사업은 ‘영화교육’과 ‘교육영화’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영화교육은 작은학교의 영화 제작 사업이며, 교육영화는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교육 현장의 경험, 공교육의 가치를 담은 영화를 제작한다. 특히 전남·광주 교육 행정 통합 추진에 따라 ‘교육영화’ 분

야에서는 광주 교직원도 전남 교육영화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작은학교 영화 특성화 교육은 매년 연말 개최되는 ‘작은학교 영화·영상제’ 출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5개 학교에서 시작된 특성화 교육은 올해 ‘영화로 담은 작은학교’ 20여 개교로 확대되며,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영화부문)인 청풍초, 중동초의 단편영화 제작도 지원한다.

이울러, 영화교육의 확산과 홍보를 위해 ‘2026. 작은학교 영화제 AI 광고 솜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남 국·공립학교 교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작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작은학교 영화제를 홍보하는 30초 내외의 광고 영상(유튜브 쇼츠) 제작물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와 교직원들은 사업 신청서를 오는 4월 1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영화라는 종합예술을 교육 소재로 삼아, 전남의 학생들이 예술적 표현력·협업의 경험을 쌓게 된다.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성화 교육으로 영화를 매개로 한 글로벌 교육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광주, 신학기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증가... “손씻기 꼭”

광주지역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호흡기 감염병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부터 28일까지 광주지역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률을 분석한 결과 인플루엔자(독감) 20.8%, 코로나19 14.9%, 리노 8.4%, 호흡기세포포화형 8.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이 1월에 가장 높았다가 2월에 잠시 주춤한 뒤 3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지

만 봄철까지도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이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와 함께 실시하는 생활하수 감시에서도 인플루엔자의 농도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일반 감기와는 달리 고열, 오한 등 심한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예방을 위해 매년 백신 접종이 권장되며, 항바이러스제 등 효과적인 치료제도 개발돼 있다.

이승원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